

미국음악교육협회(NAfME)의 조직 및 운영의 특성

문 경 숙*

본 연구는 미국음악교육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Education) 110년 역사의 발전과정 및 발전요인을 발굴하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우리 음악교육계가 원용 보완할 수 있는 점들을 탐색하는데 연구조사의 목적을 두었다. NAfME 정관의 변천과정과 저널에 나오는 주요내용, 회계자료 및 관계 학자들의 논문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분석했다. 분석 결과 첫째, NAfME 조직체계의 특징인 3인회장단제도 둘째, 재량권이 배제된 이사회와 전국대의원회 구성 셋째, 각종 저널출판 및 학술대회 개최 넷째, 음악교과의 영역확보를 위한 위기대처활동 다섯째, 역사자료관 구축사업 등에 유의하였다. 특히 3인회장단제도와 이사회 구성, 역사자료관 구축, 안정적인 음악과 교육과정 확보방안, 상설사무국 설치 등은 한국음악교육계에서 원용할 수 있는 분야다. 우리의 음악교육 환경을 감안해서 장단기로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미국음악교육, 미국음악교육가협의회(MENC), 미국음악교육협회(NAfME)

차 례

I. 서 론

II. 연 혁

1. MSNC 시기(음악감독관협의회 1907~1933)
2. MENC 시기(음악교육가협의회 1934~1997)
3. NAfME 시기(음악교육협회 1998~현재)

III. 조직 관리체계

1. 핵심기구
2. 산하 각종 전문기구
3. 상임 위원회

IV. 주요사업활동

1. 학술대회 개최
2. 정기간행물 발행
3. 역사자료관(Historical Center)
4. 위기대처활동

V. 결론 및 제언

* 공주교육대학교 초등음악교육과 부교수

I. 서론

1956년 4월 미국 ‘음악교육가협회(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이하 MENC)’가 세인트루이스 미주리(St. Louis, Missouri)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 참석, 깊은 감명을 받고 귀국한 당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이던 현재명 교수(1902~1960)는 그해 ‘한국음악교육연구회’ 창립을 주도하고 초대회장이 되었다.¹⁾ 한국음악교육가들의 최초 모임인 이 연구회는 1978년 ‘한국음악교육 학회’로 명칭을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명 회장은 MENC를 모델로 ‘한국음악교육연구회’를 발족시켰을 뿐 아니라 그 후 MENC와 긴밀한 접촉관계를 유지했으며 이 연구회는 발족하던 해에 MENC의 지원을 받아 ‘국제음악교육협회(International Society for Music Education, ISME)’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1838년 보스턴 공립학교에서 시작된 미국의 음악교육은 1907년에 음악감독관(music supervisor)을 주축으로 창립된 ‘음악감독관협회(Music Supervisors National Conference, 이하 MSNC)’가 1934년 그 명칭을 ‘음악교육가협회(MENC)’로 바꾸고 음악교육가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었으며 1998년에 다시 ‘음악교육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Education, 이하 NAfME)’로 이름을 바꾸면서 음악교육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그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및 운영체계는 3인회장제 및 이사회 구성 등에 있어 미국식 실용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현재 버지니아 주 레스톤(Reston, Virginia)에 본부를 두고 있는 NAfME는 현재 회원 규모가 13만 명이며, 8백10만 달러(약89억)가 넘는 안정적인 재정규모(2014~2015 회계연도)를 확보하고 있는 미국음악교육가들의 명실상부한 대표기구로 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NAfME의 조직 운영 및 사업 활동에 관한 자료를 취합·분석하여 전달함으로써 한국음악교육학회가 미래 혁신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NAfME가 지난 110여 년간의 오랜 기간을 통해 오늘날 미국음악교육의 대표기구로 성장하기까지 그 발전 과정을 추적한다. 둘째, NAfME의 조직관리체계 현황 및 특성을 조사한다. 셋째, NAfME가 역

1) 현재명은 당시 MENC 사무총장 바넷 롤러(Vanett Lawler)에게 서신을 보내 ‘한국음악교육연구회’의 창립 소식을 전했다. 이 서신 글은 MENC 저널인 『음악교육가저널(Music Educators Journal)』의 1957년 4~5월 호에 소개되었다. 이 글의 전문은 [부록 1] 참고.

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사업 활동을 살펴본다. 넷째, 우리나라 음악교육계에 접목할 수 있는 유익한 시사점을 탐색해 본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분석 연구가 활용되었다. NAfME에서 발간된 각종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협회의 발전과정, 현황, 조직 운영 및 사업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1914년에 창간된 협회의 공식대표저널인 『음악교육가저널(*Music Educators Journal*)』과 협회 100주년 기념 출판물 『MENC: 음악교육에 서비스 한 세기, 1907-2007(MENC: A Century of service to music education 1907-2007)』 등의 자료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NAfME의 발전 과정을 연구하였다. NAfME 조직관리체계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협회 정관 자료인 『NAfME 회칙과 부칙(NAfME Constitutions and Bylaws, 2016 개정)』 및 『전국 이사회 성문정책(National Executive Board, NEB Codified Policy, 2014 개정)』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II. 연 혁

1. MSNC 시기(음악감독관협의회 1907~1933)

미국 음악 교육가들이 처음으로 발족시킨 음악교육전문기구는 1907년에 창립된 ‘음악감독관협의회(MSNC)’였다. MSNC의 설립 이전에는 ‘미국교육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Education, 이하 NEA)’ 내의 ‘음악교육분과(NEA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에서 관련 업무를 관장해왔다.²⁾

1906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예정이었던 NEA의 전국음악교육모임이 지진관계로 갑작스럽게 취소된 다음 해인 1907년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음악감독관 필립 C. 헤이든(Philip Cady Hayden)을 주축으로 NEA와는 별도로 “학교 음악 감독관들의 전국 컨퍼런스(School Music Supervisors National Conference)”라는 독자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3일간 개최된 이 학술대회에는 14개 주에서 104명의 음악감독관들이 참가했으며, 이들이 MSNC의 창립을 정식으로 결의했다. MSNC의 정관(constitution)은 이 보다 3년 후인 1910년 신시내티(Cincinnati)에서 개최된 제3회 MSNC 학술대회에서 채택되었다.

2) 미국교육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Education Association, NEA)는 1857년에 창립되었으며, NEA는 1884년 음악교육분과(NEA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를 설치하였다.

1910년 발족초기의 조직을 보면 회장단으로는 임기 1년씩의 회장, 부회장(전임 회장)을 두고 그 밑에 실무진으로 간사와 재무를 두었다. 1918년부터 선출직 제2 부회장(second-vice president)이 추가 선출되어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리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것이 사실상 3인회장단제도가 출범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MSNC에서는 전국학술대회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1911년부터는 『회보저널(*Journal of Proceedings*)』을 발행하는 등의 사업 활동을 펼쳤다. 『회보 저널』에 대한 좋은 반응은 1914년 『음악 감독관 저널(*Music Supervisors Journal*)』 창간으로 이어졌다.

발족 당시 104명의 음악감독관들로 출발한 MSNC는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회원규모가 7,505명으로 늘어났으며, 학술대회에는 5,000여명이 참석하는 수준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MSNC의 규모가 이처럼 커짐에 따라 이에 걸 맞는 행정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MSNC는 발족 23년만인 1930년 시카고 지역의 라이온 힐리 빌딩(Lyon & Healy Building)에 임대사무실을 두고 상주행정 직원을 채용하여 조직의 경영부분을 전적으로 담당토록 하였다(Mark & Gary, 1999).

2. MENC 시기(음악교육가협의회 1934~1997)

발족 이래 26년 간 사용되었던 ‘음악감독관협의회(MSNC)’라는 명칭은 1934년 시카고에서 개최된 제23회 전국학술대회에서 ‘음악교육가협의회(MENC)’로 변경되었다. 이때부터 MENC는 조직규모, 회원 수, 재정규모, 사업 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회원 수는 연차적으로 늘어나 1950년대에는 2만 5천명, 1960년대에는 4만 2천명, 1970년대에는 6만 5천여 명으로 20년간 3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했다. 1990년대 접어들어서 회원수가 10만 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음악교육기구로 성장했다. 재정규모에 있어서는 1969~1970년 회계연도에는 \$1,086,235(약12억5천만원), 1989~1990년 회계연도에는 \$3,693,107(약41억6천만원)으로 20년 사이에 3.5배 증가해서 재정적인 안정을 기하였다.³⁾

MENC는 1950년대 접어들어 협회 목적을 회원의 “상호 이익(mutual helpfulness)” 도모에서 “음악교육의 진흥(advancement of music education)” 으로 개정하였다.

3) 1950년대~1990년대 까지 MENC 회원 수의 통계자료는 자료는 협회 100주년 기념 출판물 『MENC: 음악교육에 서비스 한 세기, 1907-2007(NAfME, 2007)』를 참고했으며, 1969~1970 회계연도자료는 1970년 12월호 『음악교육가저널』에 실린 MENC 결산보고서를 1989~1990 회계연도자료는 1990년 12월호 『음악교육가저널』에 실린 결산보고서를 각 각 참고하였다.

이처럼 협회 목적을 개정한 것은 MENC가 공공활동을 위한 사회활동참여에 더욱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새롭게 나아가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은 정관 개정을 계기로 MENC는 비영리 단체로서 인정받아 세금 면제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Gary & Mark, 1999).

MENC는 1956년 사무실을 워싱턴 D.C.(Washington D.C.)에 새로 지은 NEA의 교육센터빌딩으로 이전했다가 19년 후인 1975년 마침내 버지니아주 레스톤(Reston, Virginia)에 독자적 건물을 확보하여 상주 사무실을 마련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대목은 MENC는 1964년 정관 개정을 통해 선출직 제2부회장을 없애고 차기 회장제(president-elect)를 새롭게 채택한 것이다. 즉 이때부터 현재의 3인회장제가 도입된 것이다.⁴⁾

탄탄한 재정건전성 확보와 독자적 사무실 확보는 MENC 사업 활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출판 업무를 강화하여 발행저널의 종류를 늘리고 탱글우드 심포지엄(Tanglewood Symposium, 1967)을 비롯하여 전국학술대회 개최, 포드 재단 지원(180만 달러, 약16억)의 현대음악프로젝트(Contemporary Music Project, 1963-1973) 사업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1968년에는 메릴랜드 대학교(University Maryland)와 협약을 맺고 이 대학 도서관에 MENC의 ‘역사자료관(Historical Center)’을 설립하였다.

이 밖에도 정부를 대상으로 한 활발한 대외홍보활동을 전개 한 결과 1994년에 제정된 법령 “목표2000: 미국교육조례(Goal 2000: Educate America Act)”에 예술 과목이 핵심 교육과정에 채택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어서 MENC는 미국 교육 부로부터 100만 달러(약11억 원)을 지원 받아 미국 최초의 국가수준 음악교육과정인 “예술 교육을 위한 국가표준성취기준(National Standards for Arts Education)”을 개발하였다.

3. NAfME 시기(음악교육협회 1998~현재)

1998년 MENC는 명칭을 ‘MENC-음악교육협회(NAfME)’로 변경하고 2008년에는 MENC를 완전히 삭제 ‘NAfME’로 새롭게 바꿈으로써 정부 및 관계기관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집중적인 대외홍보활동을 펼쳤다. 이 시기에도 음악교육을 핵심 교과과목으로 유지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 노력은 계속되었다. NAfME

4) 1964년 MENC 정관을 개정을 통해 협회 역사상 처음으로 차기회장선출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차기회장제의 새로운 도입은 회장직을 수행하기 전에 예비적 경험을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MENC, 1965, p.103).

는 1994년 “국가표준성취기준”을 새롭게 개정한 “국가 핵심 음악표준 성취기준(New National Core Music Standards)”을 2014년 6월에 공표하였다. 21세기 미래 음악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한 “비전 2020: 미래음악교육에 관한 하우스라이트 심포지엄(Vision 2020: The Housewright Symposium on the Future of Music Education)”을 개최했다.

NAfME는 “비전 2020”을 토대로 5개년 전략계획을 두 차례에 걸쳐 수립 발표했다. 2011년 8월 1일 발표된 “2011~2016 전략 계획(Strategic Plan)”에는 NAfME의 사명(mission)으로 “모든 사람들이 음악을 배우고 만들도록 장려함으로써 음악교육의 발전을 도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NAfME의 비전으로는 “모든 학생들이 포괄적이고 순차적인 음악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아 평생 음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홍보, 연구 및 조직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2015년 10월 23일에 발표된 전략계획은 2011~2016 계획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이며 이 계획은 2017년부터 2022년 까지 적용된다.⁵⁾

NAfME는 특히 학교음악프로그램의 지원을 강화하고 음악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학교 음악의 달(Music in Our School Month)” 프로그램 운영, 기부재단설립(“Give a Note Foundation”), 타 기관 및 단체와의 파트너십 확대(협회, 방송기관, 기업 등 현재 총 21개) 등 대외적인 홍보활동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현재 NAfME는 공립학교 음악교사, 대학교의 음악교육 교수, 퇴직 음악교육가, 예비 음악교사 등 13만 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으며 회비수입 등으로 현재 8백 10만 달러(약89억)가 넘는 예산(2014~2015 회계연도)를 확보하고 있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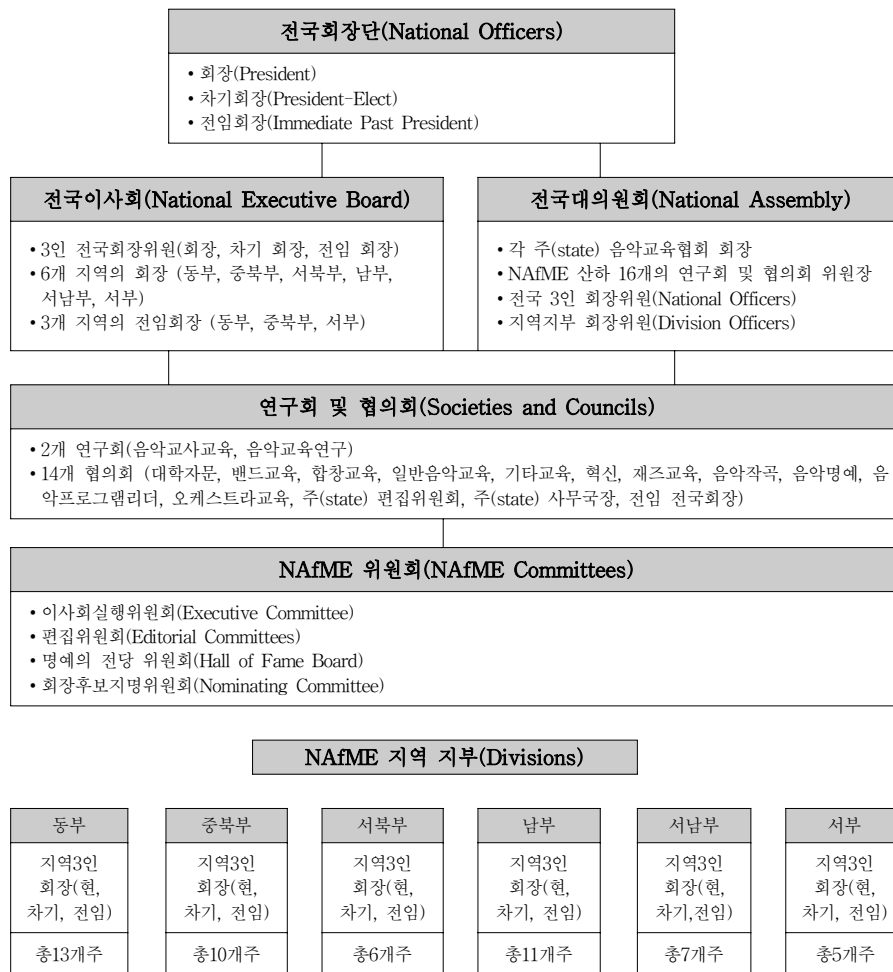
Ⅲ. 조직 관리체계

본 장에서는 『2016 NAfME 회칙과 부칙』 및 『2014 전국이사회 성문정책』 등의 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NAfME의 조직 관리체계를 분석하였다. NAfME의 조직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회장단(National Officers),’ ‘전국이사회

5) “NAfME 전략계획 2017~2022(NAfME Strategic Plan 2017~2022)” 전문은 [부록 2] 참고.

6) 2014~2015 회계자료는 NAfME의 2015년 6월 30일자 회계결산보고서를 참고하였으며 이 자료는 협회 웹사이트에 PDF파일로 탑재되어 있음. <http://www.nafme.org/about/financials/>

(National Executive Board), '전국대의원회(National Assembly)', '연구회 및 협의체(Societies and Councils)', 'NAfME 상임위원회(Committees)', 'NAfME 지역지부(Divisions)' 등 6개 기구로 이루어져 있다.⁷⁾ 이를 크게 핵심기구, 산하 각종전문기구, 상임위원회 등 3개로 구분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았다.



[그림 1] NAfME 조직구조도

7) [그림 1]에 제시된 조직도는 NAfME 웹사이트에 소개된 조직구성표(structure/organizational chart)를 일부 재구성하여 번역한 것임.

1. 핵심기구

NAfME의 핵심기구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회장단,’ ‘전국이사회,’ ‘전국대의원회’ 등 3개 기구이다. 주목할 점은 회장(National President), 차기회장(President-Elect) 및 전임 회장(Immediate Past President) 등 3인으로 구성된 전국회장단의 기능과 역할이다. 3인 공동회장제라 할 수 있는 이 3인 회장단에게 NAfME 운영의 거의 전권을 주도록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이 3인회장단은 전국이사회와 전국대의원회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을 뿐 아니라 4인으로 구성된 전국이사회 실행위원이기도 하다. 즉 3인회장단은 전국회장 위원으로서 전국이사회와 전국대의원회를 통해 사실상 협회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각 지역 지부도 3인 회장제(지역 회장, 차기 회장, 전임 회장)를 취하고 있다.

또한 전국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지역성을 최대한 살려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즉 NAfME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국이사회에 6개 지역지부의 회장 6명, 3개 지역의 전임회장 3명 등 총9명의 지역 대표를 포함시킴으로써 협회가 전국을 대표하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되는 방식을 펴하고 있다. 3개 핵심기구의 역할 및 기능을 각 기구별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국회장단(National Officers)

전국회장단은 일종의 3인 공동회장 제도라 할 수 있다. 즉 전국회장단은 NAfME의 가장 중요한 정책결정 기구이다. 전국회장단은 회장, 차기 회장, 전임 회장 등 3인의 회장들로 구성된다. 일종의 공동회장제도인 것이다. 이들 3인 회장은 NAfME 조직의 관리 체계에 있어서 거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이사회, 이사회의 실행위원회, 대의원회 등 모든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며, 업무 집행 및 의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회장, 차기 회장, 전임회장의 임기는 각 2년이다. 회장 선출은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며, 각 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2년의 회장 임기가 끝나면 차기회장이 자동적으로 회장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즉 차기회장에 선출되면 차기회장 2년, 회장2년, 전임회장 2년 등 그 임기는 총6년이 된다. 이와 같은 3인 공동회장제는 회장의 전횡을 막고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판단된다. 『2016 NAfME 회칙과 부칙』 3장 2조에 따르면 회장, 차기회장, 전임회장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 회장은 전국이사회 회의를 포함 협회의 모든 회의를 기획하고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 회장은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 회장은 회장 직책과 관련된 모든 임무를 수행한다.
- 차기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다.
- 전임회장은 회장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전국 대의원회 사회를 맡으며,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다(NAfME, 2016, p.6).

『2014 전국이사회 성문정책』 규정에 따르면 회장 후보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다.

- NAfME의 적극적인 회원이어야 하며 이 조직에 대해 강한 공감대를 갖고 있어야 한다.
- 음악교육의 특정한 영역에서 탁월함의 기록이 확고히 서있어야 한다.
- 지역 지부 또는 전국 수준의 협회에서 그 역량을 인정받아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 리더십 자질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야 한다.
- 공식 발표 성명과 저술을 통해서도 협회를 대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 6년 임기(즉 차기 회장 2년, 회장 2년, 전임 회장 2년)인 회장직을 위해 헌신할 시간, 의지 및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목적과 목표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 그룹에서도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NAfME, 2014, pp.66-67).

회장 후보를 선출할 때는 우선 전국이사회에서 ‘추천위원회(nominating committee)’를 구성한다. 추천위원회 위원은 6개 지역에서 각1명, 위원장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전임회장이 맡고, 적어도 1명은 이사회 위원을 지냈던 인물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추천위원은 소속 지역에서 폭 넓은 교류가 있고 협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역할을 맡은 경험이 있으며 협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회장 후보 2명~6명을 선정한다. 이를 이사회가 추인하면 전국대의원회에서 최종 후보 2명을 선출하게 된다. 회장 후보들은 대의원회에서 연설을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된다. 만약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비밀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 2인이 결정된다. 최종 후보 2명이 결정되면 온라인 전자투표방식으로 협회 회원들이 회장을 선출한다. 투표 기간은 1월 둘째 주 화요일에 시작되며, 30일간 실시된다.

2) 전국이사회(National Executive Board)

전국이사회는 NAFME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기구이자 실행기구이다. 『2016 NAFME 회칙과 부칙』 3장 1조에는 이사회에 관한 “협회의 운영, 정책 결정 및 실행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2016, p.6). 회칙에 규정된 이사회에 부여된 직무는 아래와 같다.

- 지역 구분을 포함하여 협회의 기능 전반을 관할하고 책임지며
- 전국 및 각 지역 선거에서 후보자 명부를 승인하며
- 전국 및 지역에서의 교사연수컨퍼런스(in-service conference) 개최 일자와 장소를 승인하며
- 전임 회장의 자리가 비었을 경우 남은 임기 기간을 채우며
- 각종 전문 연구회, 협의회 및 프로젝트팀(task forces)을 설치하거나 중지할 권한을 갖고
- 각종 전문 연구회, 협의회 및 ‘프로젝트 팀’ 멤버들을 선출하거나 선출을 승인하며
- 협회의 회계 연례 검사를 자격 있는 회계사에게 의뢰할 준비를 하며
- 협회의 사업 관리와 운영 그리고 재원의 관리와 통제에 대한 책임을 지니며
-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임무와 보수를 정하며, 사무총장 행위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갖는다(NAFME, 2016, pp.6-7).

이사회 위원은 총1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회장단 3명(회장, 차기회장, 직접 회장)과 6개 지역지부 회장 6명(동부, 중북부, 서북부, 남부, 남서부, 서부), 4개 지역지부 전임회장 4명(동부, 중북부, 서부, 이 외 1개 지역) 등으로 구성된다. 이사 후보자의 자격을 지역회장으로 못 박음으로서 후보선정의 재량권을 막아버린 것도 특징 중의 하나다.

회장이 이사회의 ‘위원장(chair)’을 맡으며, 이사회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이사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거나 또는 이사회 위원 다수의 요청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의결정족수는 이사회 정원의 50% 이상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회의 소집을 전자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사회의 ‘실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는 회장 3인(회장, 차기 회장, 전임 회장)과 회장으로부터 지명된 1명의 지역 회장 등 총 4명으로 되어있다.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며, 회장 임기 1년 남은 시점부터는 차기 회장이 위원장직을 승계한다. 실행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즉 이사회에 협회 예산안을 제안하고 협회의 재정 관리를 감독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무총장과 투자전문가의 수행능력을 검토하고 평가하며 투자전문가를 해고할 수 있다. 따라서 차기회장은 회장임기 1년 전부터 협회의 재정 관리를 사실상 관장하게 된다.

3) 전국대의원회(National Assembly)

전국대의원회는 “전국이사회의 자문기구(advisory body) 및 리더십 기구(leadership conference)로서 역할하며 또한 주, 지역 및 전국 단위의 정책과 조직의 기능 및 활동에 관한 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센터(clearinghouse)로서” 역할을 한다(NAfME, 2014, p.16). 전국대의원회는 89명의 대의원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전국 회장위원 3인(회장, 차기 회장, 전임 회장), 6개 지역지부의 3인 회장(지역회장, 차기 회장, 전임 회장) 18명, 52개 주 음악교육협회 회장 52명, 산하 16개 연구회 및 협의체 위원장 16명 등 이다.

전국대의원회 회의는 6월 여름에 개최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회의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개최될 수 있다. 회의 개최시 전임 회장은 위원 출석을 확인하고 사회를 맡는 회의진행 위원장이 되고 전국 회장은 안전처리 위원장 역할을 한다. 표결 정족수는 전국위원회 위원 정수의 25%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전국 위원회에서 투표가 실행될 경우, 위원 1인 1표제로 한다.

2. 산하 각종 전문기구

‘연구회 및 협의체’는 음악교육분야의 세부 전문영역을 기반으로 하여 조직된 각종 전문 기구라 할 수 있다. NAfME에서는 이들 전문기구를 통해 음악교육분야의 전문성 측면에서 회원들의 총체적인 관심과 의사를 조직 운영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NAfME는 산하에 각종 연구회 및 협의체 16개를 두고 있다. 이들 연구회 및 협의체에는 음악교육분야의 세부 전문 영역이 폭넓게 반영되어 있다.

연구회는 ‘음악교육연구 연구회(Society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와 ‘음악교사교육 연구회(Society for Music Teacher Education)’ 등 2개의 연구회가 있다. 연구회는 두 가지 주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즉 NAfME가 개최하는 학술대회를 위해 관련 분야(교사교육 및 학술연구) 세션을 선정하는 역할과 학술저널을 발행하는 것이다. 음악교육연구 연구회에서는 『음악교육연구저널(*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을 발행하고, 음악교사교육연구회는 『음악교사교육저널(*Journal of Music Teacher Education*)』을 발행한다.

협의회는 14개 협의회가 있다. 그 성격에 따라 ‘대표자협의회(Representative Councils),’ ‘역할기반협의회(Role-Based Councils),’ ‘프로그램자문협의회(Program Advisory Councils)’ 등 세 그룹으로 구분된다. 대표자 성격을 띤 협의회는 ‘밴드

교육협의회(Council for Band Education), ‘오케스트라교육협의회(Council for Orchestra Education), ‘합창교육협의회(Council for Choral Education), ‘재즈교육협의회(Council for Jazz Education), ‘일반음악교육협의회(Council for General Music Education), ‘기타교육협의회(Council for Guitar Education), ‘음악작곡협의회(Council for Music Composition), ‘혁신협의회(Council for IN-ovations), ‘음악 프로그램 지도자협의회(Council for Music Program Leaders) 등 총 9개의 협의회가 여기에 속한다.

‘대표자협의회’의 특징은 6개 지역지부에서 임명된 멤버들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그 목적은 현장 음악교사들의 전문성 및 다양한 관심을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매년 개최되는 NAFME의 ‘전국 교사연수 학술대회(National In-Service Conference)’의 세션을 선정하는데 의견을 제시하고 국가차원의 음악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피드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역할기반협의회’는 리더십 그룹이라 할 수 있으며 협회 내에서 역대 또는 현재 특정한 직책을 맡고 있는 회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여기에는 ‘역대 회장협의회(Council of Past National Presidents), ‘주 사무총장협의회(Council of State Executive Directors), ‘주 편집위원협의회(Council of State Editors) 등 3개 협의회가 있다. ‘역할기반협의회’는 구성 멤버들이 협회를 대표하여 관장하는 행정, 출판 등과 같은 주요 업무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프로그램자문협의회’는 학생(초·중등·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체로 ‘대학생자문협의회(Collegiate Advisory Council)’와 ‘음악영예 소사이어티 자문협의회(Music Honor Society Advisory Council) 등 2개 협의회가 있다. ‘대학생자문협의회’는 대학생 회원 모집과 관련된 사업을 개발하고 지원하는데 주력한다. ‘음악영예소사이어티 자문협의회’는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탁월한 음악성을 지닌 학생을 발굴하여 인정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한다.

3. 상임 위원회

NAFME는 ‘편집위원회(Editorial Committees), ‘명예의 전당위원회(Hall of Fame Board) 등 2개의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s)’를 두고 있다. 편집위원회는 협회의 주요 기구이며 그 위원은 전국이사회에서 임명한다. 협회에서 발행하는 『음악교육가저널』, 『업데이트: 음악교육연구적용(Update: Applications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음악교육연구저널』, 『음악교사교육저널』, 『일반 음악투데이(General Music Today)』, 『음악지도 (Teaching Music)』 등 6종의 정기 간행물은 각각 별도의 편집위원회를 두고 있다.

『음악교육가저널』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20명으로 이루어지며 임기는 편집위원장은 6년, 편집위원은 4년이고 연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최종적으로 전국이사회의 추인을 받아 결정된다. 다른 4개 저널의 경우도 이와 같은 제도는 유사하며 편집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임기에 다소 차이가 있다. 『음악교육연구저널』의 경우 편집위원회 구성인원은 21명이며 임기는 6년이고, 『음악교사교육저널』의 편집위원회는 9명, 『업데이트』는 10명, 『일반 음악투데이』는 6명이고 임기는 각각 6년으로 동일하다.

‘명예의 전당위원회’는 미국 음악교육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기리는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다. ‘명예의 전당위원회’에서는 인물을 선정할 때 교육, 연구, 행정, 자료 개발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선정하는 기준은 네 가지이다. 즉 음악교육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평가하는 “기여도 (contribution),” 동시대 음악교육가들보다 뛰어난가를 평가하는 “명성(eminence),” 분야가 작더라도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평가하는 “영향력(influence),” 미래 세대에도 영속적으로 그 업적이 높이 평가될 것인가를 보는 “영구성(permanence)” 등 네 가지 관점이 선정 기준으로 적용된다(2014, p.39).

인물 선정은 2년 마다 이루어지며 최대 3명까지 선정된다. 미국 음악 공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로웰 메이슨(Lowell Mason), 음악교육철학자 베넷 리머(Bennet Reimer), 역사가 마이클 마크(Michael L. Mark), MENC 시기의 사무총장 바넷 로울러(Vanett Lawler), ‘청소년 음악회’ 프로그램으로 TV 음악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쓴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Leonard Bernstein), 역사자료관 큐레이터 브루스 윌슨(Bruce Willson) 등 등 현재까지 총73명의 인물이 선정되었다. 이들의 공로를 기념하는 명판이 협회 본부에 설치된 명예의 전당에 전시되어 있다.

IV. 주요사업활동

1900년대의 미국 음악교육은 적지 않은 난관도 있었지만 특히 MENC시기(1934~1997)에 음악 교육가들의 열정에 힘입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계속해서 개발되었다. 탕글우드 심포지엄 등 학술대회를 비롯해서 각종 저널의 신규출판과

역사자료관의 구축 및 적절한 위기대처활동이 계속 이어졌다. 말하자면 MENC 시기에 미국 음악교육이 전성기를 맞은 것이다. 현재 NAfME는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미국의 미래 음악교육을 새롭게 개척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장에서는 MSNC시기(1907~1933)부터 MENC 시기(1934~1998)를 거쳐 현재 NAfME에 이르기 까지 추진되어 온 주요사업활동을 학술대회 개최, 정기간행물 발행, 역사자료관 설립, 위기대처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학술대회 개최

미국음악교육협회의 전국 학술대회는 1907년 아이오와주 케이콕에서 처음 개최된 음악감독관 학술대회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총42회 개최되었다. 이 학술대회는 2008년까지 ‘비엔날레 전국 연수 학술대회(National Biennial In-Service Conference)’란 명칭으로 미국 전역을 순회하는 형식으로 격년제로 개최되었다.

아래에 열거한 역대 학술대회는 미국음악교육이 나아갈 철학적 방향을 명료하게 제시해 주고 이를 결의안이나 성명서 등의 형식으로 발표함으로써 미국음악교육의 발전과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나간 역사적인 학술대회로 평가받는 대표적인 학술대회다.

- 1910년 : “공립학교를 통해 좋은 음악을 장려 촉진”한다는 것을 협회 목적으로 채택 정관에 반영
- 1922년: 슬로건 “모든 어린이를 위한 음악-음악을 위한 모든 어린이(Music for Every Child-Every Child for Music)” 발표
- 1950년: “어린이 음악 권리장전(The Child’s Bill of Rights in Music)” 결의안 채택
- 1967년: “미국사회에서의 음악(Music in American Society)” 탕글우드 심포지엄 성명서 발표
- 1972년: “음악교육의 목적과 목표(Goals and Objectives of Music Education)” 발표
- 1999년: “비전 2020: 미래음악교육 하우스라이트 심포지엄” 결의안 발표

이 중에서도 특기할 만한 학술대회는 다음과 같다. 1922년도 학술대회는 MSNC(1907~1933) 시기에 테네시 주 내쉬빌 (Nashville, Tennessee)에서 개최된 것으로 당시 회장인 칼 거킨스(Karl Gehrken)가 “모든 어린이를 위한 음악 (Music for Every Child)”을 학술대회 주제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이 슬로건은 협회가 존재하는 사명을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 정신은 후세대의 음악교육가들에 의해 계속적으로 계승되고 있다(Heidingsfelder, 2014).

탱글우드 심포지엄(Tanglewood Symposium)은 MENC 시기(1934~1997)에 개최된 것으로 음악교육계 뿐만 아니라 철학, 교육, 과학, 사회과학, 산업, 정부 관계자, 음악학 등 폭넓은 분야의 저명 인사들을 초청하여 미국 현대사회에서 음악교육의 문제와 발전 방향을 탐색했다는 점과 “학교 음악교육과정에 모든 시대, 문화, 장르 및 스타일의 음악을 포함시킨다”는 성명 발표로 미국의 현대 음악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점 등이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비전2020 심포지엄”은 NAfME 시기(1998~현재)의 대표적인 심포지엄으로 손꼽힌다. “왜 인간은 음악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왜 음악을 배우는가?” “국가표준성취기준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의미 있게 음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사회 기술 변화가 음악을 가르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음악을 배우는데 있어서 학교와 학교 외의 다른 공급원 간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등의 주제가 논의되었다(Madsen, 2000). “비전2020 심포지엄”은 21세기 미래 음악교육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학술대회라 할 수 있겠다.

전국 학술대회의 규모는 매우 크다. 3~4일에 걸쳐 개최되며 전국 각지에서 온 참가자 수는 수천 명에 이른다. 학술대회에서는 음악교육의 광범위한 주제가 다루진다. 1988년부터 2008년까지 20년간의 컨퍼런스 내용을 분석한 팔키 외(Palkki, et al., 2016) 연구에 따르면 발표 세션 수는 적게는 135개에서 많게는 338개에 이른다. 발표 주제는 음악교육의 행정, 홍보, 교육과정, 평가, 교사교육, 예술통합, 테크놀로지, 교수자료, 교수전략, 특수학습자, 멘토링 등 등 주제의 폭이 광범위하다. 주제별로 그 비중을 살펴보면 테크놀로지 관련 주제가 19.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교수전략(16.1%), 레퍼토리/교수자료(8.3%), 교육과정(7.3%), 연구(5.4%), 다문화(5.1%), 창의성(4.3%), 교사교육(3.4%), 평가(2.9%), 홍보(2.7%), 예술통합/간문학(2.2%), 교사모집/유지(1.4%), 재즈(1.4%), 특수학습자(1.4%), 학급경영(1.2%), 지역사회연계(1.2%), 도시/농촌(1.1%), 행정(0.9%), 지휘(0.6%), 멘토링(0.3%) 등의 순이다(p.20).

2009년부터 NAfME의 학술대회는 두 종류로 구분되어 개최되고 있다. 이 전까지의 학술대회는 음악교육분야 내에서의 직종과 전문 분야 구분 없이 음악교육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개최되어 왔었다. 그러나 현재는 그 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다. 즉 음악교육연구 및 교사교육에 초점을 둔 ‘음악교육 연구와 교사교육 학술대회(NAfME Music Education Research and Teacher Education National Conference)’와 현직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연수 성격의 ‘전문성 신장 교사연수 학술대회(Professional Development In-Service

Conference)’로 구분하고 있다. 개최시기도 달리하여 ‘음악교육연구 및 교사교육 학술대회’는 격년제로, ‘교사연수 학술대회’는 연례적으로 개최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NafME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현직교사 교육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엿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 정기간행물 발행

NafME는 협회의 주요한 목적인 “음악에서의 교육, 연구 및 학문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기간행물을 발행한다(NafME, 2014, p.120).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발행되고 있는 정기간행물의 종류는 『음악교육가저널』, 『음악교육연구저널』, 『일반음악투데이』, 『업데이트: 음악교육연구적용』, 『음악교사 교육저널』, 『음악지도』 등 총 6종이다(표1참고).

각 저널마다 차별화된 특성이 있다. 『음악교육가저널』은 음악 및 예술 교육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음악교육의 현안을 논의하며, 음악교육 직종내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음악교육연구저널』은 음악교육 분야의 학문과 연구의 질을 높이고 개선하며 연구 결과를 진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일반음악투데이』는 일반음악수업의 성공 사례, 수업전략 및 지도자료 공유 및 일반음악수업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관심 사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업데이트』는 학술적 연구결과를 현장 교사가 음악수업 또는 리허설 홀의 교육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음악교사교육 저널』은 음악교사 교육과 관련된 철학적, 역사적, 서술적 또는 방법론적 기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음악지도』는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음악교사가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표 1> NafME에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저널명	첫발행	횟수	형태
『음악교육가저널(Music Educators Journal)』	1914년	년4회	디지털 (2016 이후)
『음악교육연구저널(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953년	년4회	프린트 & 디지털
『일반음악 투데이(General Music Today)』	1987년	년3회	디지털
『업데이트: 음악교육 연구의 적용(UPDATE: applications of Music Education)』	1989년	년2회	디지털

저널명	첫발행	횟수	형태
『음악교사교육저널(Journal of Music Teacher Education)』	1991년	년2회	디지털
『음악 지도(Teaching Music)』	1993년	년4회	프린트 & 디지털

이 중 NAfME의 대표 저널은 『음악교육가저널』이다. 1914년에 첫 발간된 『음악교육가저널』은 『음악 감독관 회보(Music Supervisors' Bulletin, 1914~1915)』로 출발하였고, 이어 1915년부터 『음악 감독관 저널(Music Supervisors Journal, 1915~1934)』로 발간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934년에 『음악교육가저널』로 명칭이 다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난 100여 년간 『음악교육가저널』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진 주제는 음악을 통해 미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주제이다. 예를 들어 <표 2>에 제시된 기사 제목을 살펴보면 미국의 학생들에게 미국 음악을 가르쳐야 하고 미국적인 음악 문화를 발굴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지의 글이 193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음악교육가저널』에 실려 왔다(McCarthy, 2014, p.29).

<표 2> 『음악교육가저널』 대표적 기사 제목(1930년대~2000년대)

저자	제목
하워드 한슨(Howard Hanson)	음악과 미국 청소년(Music and American Youth, 1934)
테오도르 F. 노먼(Theodore F. Normann)	미국 학교를 위한 미국 음악(American Music for American Schools, 1941)
찰스 시거(Charles Seeger)	미국 어린이를 위한 미국 음악(American Music for American Children, 1942)
프레데릭 페넬(Frederick Fennell)	미국의 음악 유산(The American Musical Heritage, 1957)
알렌 P. 브리튼(Allen P. Britton)	음악교육: 미국의 스페셜티(Music Education: An American Specialty, 1962)
로버트 A. 초트, 막스 카플란(Robert A. Choate & Max Kaplan)	미국사회에서의 음악: 현안 소개(Music in American Society: Introduction to Issues, 1967)
베스 로막스 호위(Bess L. Hawes)	다문화적 긴요함: 우리 문화의 모자이크(The Multicultural Imperative: Our Cultural Mosaic, 1983)
패트리샤 K. 셔한(Patrick K. Shehan)	국가 음악 스타일 발굴하기: 어린이에게 귀 기울이기(Finding a National Music Style: Listen to the Children, 1987)
찰스 A. 엘리엇(Charles A. Elliott)	미국에서 노래하기: 전통 되살리기(Singing in America: Reviving a Tradition, 1990)
앤소니 시거(Anthony Seeger)	미국의 음악 모자이크를 축하하기(Celebrating the American Music, 1992)

*기사 목록은 McCarthy, 2014, pp.37-38에서 재인용.

이 외에도 협회는 『음악교육가저널』 특집호(special issue)를 발행 해 왔다. 핵심 쟁점으로 제기되는 현안,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는 특정한 주제, 협회의 주요한 심포지엄, 기념할 만한 역사적 이벤트 등의 주제가 특집호를 통해 집중적으로 다뤄졌으며 현재까지 총32개의 특집호가 발행되었다. <표 3>은 1967년부터 2014년까지 특집호에서 다뤄진 주제 목록이다. 심포지엄(“탱글우드,” “비전 2020”)을 다룬 특집호, 테크놀로지, 다문화, 즉흥연주, 통합, 평가, 교사교육, 인물 등 특정한 주제에 중점을 둔 특집호, 미국음악교육의 역사를 기념(50주년, 75주년, 100주년)하는 특집호 등 선정된 주제의 종류나 폭이 매우 광범위하다.

<표 3> 『음악교육가저널』 특집호 주제

년도	주제	년도	주제
1967.11	탱글우드 심포지엄	1984.01	음악교육에서의 컴퓨터
1960.11	젊은층의 음악	1985.01	디지털 음악실
1970.01	도시의 음악교육	1986.02	음악교육의 대표적 접근법
1970.03	음악 평론가	1986.12	컴퓨터와 음악교육
1971.01	음악 교육에서의 테크놀로지	1987.11	음악과 신체표현
1971.04	음악적 행동에 관한 연구	1988.02	150주년: 미국의 음악 교육
1972.04	특수 교육에서의 음악	1999. 07	음악과 유아
1972.10	세계 문화 속의 음악	1999. 09	음악교육에서의 평가
1974.03	유아 교육	2000. 03	비전 2020
1974.10	찰스 아이브스 100주년	2000. 07	레퍼토리 선정
1977.03	음악에서의 진로	2000. 09	음악과 두뇌
1980.01	즉흥연주	2000. 11	음악교사의 생활
1981.11	음악교육의 위기	2001. 01	(특수학생과의) 통합
1982.04	모든 어린이를 위한 음악: 특수 학생지도	2001. 01	작곡과 즉흥연주
1982.10	진로와 음악	2002. 09	음악교육에서 변화하는 관점
1983.01	테크놀로지	2014.	『음악교육가저널』 100주년 기념

*특집호 주제 목록은 Freer, 2014, p.18에서 재인용.

3. 역사자료관(Historical Center)

NAfME는 ‘역사자료관(Historical Center)’의 운영을 통해 미국음악교육과 협회의 역사적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역사자료관은 MENC 시기에 1964년 메릴랜드 대학교와 협약이 성사되어 1968년에 메릴랜드 대학교 캠퍼스의 도서관에 설립되었다. 협약 당시 명칭은 ‘MENC 기록보관소(The MENC Archives)’였으며, 메릴랜드 대학교와 MENC 와 맺은 협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메릴랜드 대학교 측에서는 모든 역사 사료의 취득, 유지 및 이용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과 장비비를 제공 할 것이며; 사료를 선택하고, 다루고, 카탈로그 하고, 철하는 데 필요한 기록 보관 담당자 및 지원을 제공 할 것이며; 인쇄물과 필사본 모두 사료를 복사하고 테이프에 녹음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도서관, 직원 및 MENC가 함께 승인한 스케줄에 따라 본 컬렉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리고 본 컬렉션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MENC측은 사료의 광범위한 활용 및 기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 컬렉션을 널리 홍보 할 것이며; 본 기록보관소를 이용하는 학자들의 보고서를 MENC의 정기간행물인 『음악교육가저널』, 『음악교육연구저널』 등에 출판토록 하여 아웃렛을 제공 할 것이며; MENC의 본부 직원 및 ‘음악교육연구협의체’를 통해 자문형태의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만약 자료의 특별한 구입이 본 컬렉션의 가치 및 유용성을 높이는데 필수적이라면 기업이나 다른 재원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본 컬렉션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은 기부자와 대학교의 동의하에 결정될 것이다(MENC, 1965, p.47).

1968년 9월 ‘MENC 기록보관소’ 라는 명칭은 그 의미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 보다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의미를 지닌 ‘MENC 역사자료관’으로 새롭게 명칭을 바꾸었다. 이와 함께 역사자료관에 전문 큐레이터 한 명 (Bruce D. Wilson)을 새롭게 채용하였다. 당시 MENC(1969)는 다음과 같이 사료 컬렉션을 5개 범주로 분류하여 관리토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였다.

- (1) MENC 본부 및 지부의 기록 문서(archival documents of the MENC and its divisions)
- (2) 음악교육 지도자료(instructional materials in music education)
- (3) 전문서적 출판물(professional publications)
- (4) 교육과정, 행정, 철학 자료(curricular, administrative, and philosophical materials)
- (5) 기타 역사 사료(other historical materials)(pp.62-63).

현재 NAfME의 역사자료관은 협회 역사와 관련된 협회의 행정기록, 정기 간행물, 역대 회장 및 저명한 음악교육가들의 저술서, 미국 음악 교과서 컬렉션, 현대 음악프로젝트(Contemporary Music Project, 1963~1973) 관련 자료, 녹취록, 녹음 자료 및 영상물 등 다양한 형태의 방대한 양의 사료를 비치 해 놓고 있다. 이들 사료는 총26개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목록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NAFME 역사자료관의 사료 그룹 목록

사료그룹 (RG)번호	사료 그룹명
RG1	행정 조직(Governing Bodies)
RG2	사무 직원과 부서(Executive Officers and Departments)
RG3	협의체(Councils)
RG4	커미션(Commissions)
RG5	위원회(Committees)
RG6	프로젝트와 프로그램(Projects and Programs)
RG7	현대음악프로젝트(The Contemporary Music Project, CMP)
RG8	심포지엄과 기관(Symposiums and Institutes)
RG9	전국대의원회(National Assembly)
RG10	지부(Divisions)
RG11	주 협회 파일(State Files)
RG12	보조기관(Auxiliary Associations)
RG13	연합 단체(Associated Organizations)
RG14	관련 단체(Related Organizations)
RG15	NAfME 역사센터(NAfME Historical Center)
RG16	정관과 규정(Constitutions)
RG17	선거(Elections)
RG18	멤버십(Membership)
RG19	출판물(Publications)
RG20	학술대회(Conferences), 전국/지역컨벤션(Conventions, National and Divisional)
RG21	스크랩북(Scrapbooks)
RG22	사운드 리코딩(Sound Recordings)
GR23	사진(Photographs)
GR24	구술역사(Oral Histories)
GR25	관련 컬렉션(Related Collections)
GR26	협회 본부(National Office/Headquarters)

* NAFME 역사자료관 웹사이트(http://lib.guides.umd.edu/scpa_musiced)에 탑재된 사료 그룹 목록을 재구성함.

참고로 NAFME는 역사자료관과는 별도로 문서자료를 자체적으로 전산화해서 보관 하고 있다. 특히 NAFME 발행 정기간행물의 데이터베이스는 온라인으로 구축되어 있고 역대 저널부터 현재까지 전시기의 저널을 열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저널이용 서비스를 회원에게 제공하고 있다.

4. 위기대처활동

NAfME의 “2011~2016 전략 계획”에는 “대외홍보활동(advocacy)”이 협회의 핵심 전략 방향으로 강조된다. “대외홍보활동”이란 “음악은 교육의 핵심 교과로서 미래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음악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반 국민, 정책입안자들, 교육 지도자들에게 알리고 음악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으로 NAfME는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홍보활동을 강조하게 된 배경에는 과거에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음악교과가 소외됨으로써 음악교육의 위상과 입지가 흔들리게 된 큰 위기를 몇 차례 겪었기 때문이다. 1957년 소련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 발사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미국 정부는 교육개혁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그러나 기초과목 위주로 교육개혁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음악교과의 입지가 크게 약화되었다. 이 때 MENC는 음악교과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1966년 MENC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을 새로 채용하였다. 이를 위해 MENC는 회원들의 연회비를 6달러에서 10달러로 올렸다. 홍보 활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미국의 대표급 지도자 및 저명인사들 대상으로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지지하는 발언들을 녹음하고 이를 전국 라디오 방송에 내보냈으며, 홍보 안내 책자 『음악 교육가를 위한 홍보 활동에의 접근(Approaches to Public Relations for the Music Educators, 1968)』를 출판했다(Mark & Gary, 1999).

1970년대 초에 접어들어서 국가적으로 경제 위기가 닥치게 되자 학교 음악프로그램 예산이 삭감되면서 음악교과의 입지가 또 한 번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홍보활동의 방향은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를 대상으로 대외 홍보 활동이 확대되었다. 1971년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어린이와 청소년 백악관 회의(The White House Conference on Children and Youth)”에서 TV 방송을 위해 MENC와 교육부가 협동 제작한 음악 프로그램 “어린이의 소리(Sounds of Children)”를 발표하였다. 1972년에는 시카고 지역 학교에서 음악을 포함한 예술 교과 프로그램을 폐지하려고 하자, MENC는 시카고 지역의 다른 음악전문단체들과 연합하여 폐지 반대운동을 전개하여 폐지를 막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Mark, 2007).

1980년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학교 졸업으로 학교입학인구가 감소하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회원수가 5만 5천명으로 줄어들자 MENC 재정에 큰 타격을 주었다. 다른 한편 1983년 미국 교육의 질적 저하 문제를 보고한 ‘교육 탁월성 국가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Excellence in Education)’의 보고서 『위기에 처한 국가(Nation at Risk)』가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기초과목이라 규정된 5개 과목의 새 교육과정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여기에 음악을 포함한 예술교과는 빠져있었고 MENC는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에 크게 반발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MENC는 타 예술교육분야(미술, 연극, 무용)와 연합하여 1986년 “필라델피아 결의안(Philadelphia Resolution)”을 발표한다. 이 결의안에는 정부가 예술교육, 예술 교사 및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31명의 예술 및 교육 단체 지도자들의 성명서를 담고 있다. 2년 후인 1988년 MENC는 전국연극교육연합회, 전국미술교육연합회, 전국댄스교육연합회와 연대하여 ‘예술교육전국연합(National Coalition for Education in the Arts)’을 결성하고, 산하에 ‘음악교육전국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Music Education)’를 만들어 정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대외홍보활동을 벌였다.

‘음악교육전국위원회’는 1990년 워싱턴 D.C.에서 전국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결과 보고서를 『완전하게 성장하기: 음악교육을 위해 긴요한 일(*Growing Up: The Imperative for Music Education*)』이란 제목으로 출판했다. 이 보고서는 백악관에 배포되었다. 이와 같은 노력은 1994년 통과된 “목표 2000: 미국교육조례(Goal 2000: Educate America Act)” 법령에 예술교과가 핵심 교육과정에 채택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쟁시기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NAfME는 능동적으로 대처 해 왔다. 제1차 세계대전 때 (MSNC 시기)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노래 부르기 운동(community singing movement)”을 적극적으로 선도해 나갔으며, 제2차 세계대전 때(MENC 시기) 미국이 참전하게 되자 “음악을 통한 미국의 단합(American Unity through Music)”이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민주주의에서의 음악(Music in Our Democracy, 1941),” “전쟁시기의 음악 교육(Music Education in Wartime, 1942)” 등의 주제로 『음악교육가저널』 특집호를 발행했다.

2001년 미국의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도 “미국 국가(國歌) 프로젝트(National Anthem Project, 2005~2007)”를 통해 전국적으로 애국 운동을 전개했다. 프로젝트 구호는 “노래하자 미국이여! (Sing America)”로 정하고 미국인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노래 15곡을 선정하고 CD로 제작 보급하고, 학생들의 국가 부르기 전국 순회공연을 기획하였다(Hedgecoth & Fischer, 2014).

이 밖에도 미국 대통령을 음악교육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대외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2007년 협회 100주년 기념 책자 『MENC: 음악교육에 서비스 한 세기, 1907~2007』에는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George W. Bush)의 아래와 같은 축하 서신(2006년 10월 17일)이 실려 있다.

음악교육협회의 100주년을 축하합니다.

음악은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인간 경험의 다양성을 전달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음악은 우리 국민의 상상력을 자극 하며 우리 문화유산에 영향을 끼쳐왔고 우리나라의 가장 소중한 예술 형식을 창조해왔습니다. 이 번 기념일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지는 음악 전통을 축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예술을 지원하고 풍부한 미국의 음악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힘쓰는 모든 이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음악 감상을 진흥시키고 우리나라의 창조적 정신을 발전시킵니다.

V. 결론 및 제언

올해로 한국음악교육학회가 발족 60년을 맞게 되어 우리 음악교육계에 새로운 도약을 시도해볼만한 좋은 계기를 마련해준 것 같다. 우리가 모델로 삼았던 미국 음악교육협회(NAfME)의 발전전략을 잘 살펴보면 조직운동 및 사업 활동 분야에서 상당히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로는 첫째 음악교육가들의 단합 도모 둘째 학회의 장서 및 문서보관 시스템 구축 셋째 다양한 사업 활동 발굴 등을 꼽을 수 있다. NAfME의 조직체계 및 사업 활동 내용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해보면 우리들이 문제해결의 열정만 갖는다면 이 같은 과제를 조금이나마 풀 수 있는 장단기 방안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단기처방 중의 하나는 NAfME가 메릴랜드 대학과 협약을 체결해서 대학도서관 안에 NAfME의 역사자료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특정대학의 지원을 받아 학회의 음악교육 관련 자료나 문서를 영구보존하는 자료관을 확보하는 것은 그 가능성이 비교적 큰 편에 속할 것 같다. 사업 활동 분야에서는 NAfME의 위기대처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술분야 특히 음악과목이 정부의 교과과정 조정에서 소외되었을 때 음악교육계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느냐를 비롯해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3인 회장제도는 잘만 활용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차기회장, 회장, 전임회장 3인의 세대감각, 학문적 색깔 등을 조화롭게 구성할 수만 있다면 업무의 연속성 유지와 조직내부의 소통 및 갈등해소란 측면에서 좋은 활로를 찾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회원의 대상범위를 공립학교 음악교사, 대학교의 음악교육 교수, 퇴직 음악교육가, 예비 음악교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유의해볼 대목이다.

이 밖에도 상설 사무국의 설치와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체계적 대외활동 강화 등은 오늘날 우리도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이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음악교육의 발전 뿐 아니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우리들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Birdge, E. B. (1988 February). Music in our schools: The first 150 years. Special Issue. *Music Educators Journal*, vol.74, 25-101.
- Hedgecoth, D. M. & Fischer, S. H. (2014 June). What history is teaching us: 100 years of advocacy in Music Educators Journal. Centennial Issue Honoring MEJ's First Hundred Years 1914-2014. *Music Educators Journal*, 100(4), 54-58.
- Heidingsfelder, L. (2014 June). The slogan of the century: "Music for every child: Every child for music." Centennial Issue Honoring MEJ's First Hundred Years 1914-2014. *Music Educators Journal*, 100(4), 47-51.
- Freer, P. K. (2014). Years of progress-Music Educators Journal from 1964 to 1989(Volumes 51-75). *Music Educators Journal*, 100(3), 18-19.
- McCarthy, M. (2014 June). "We who have the destiny of musical america in our hands" History speaks to us through 100 years of MEJ. Centennial Issue Honoring MEJ's First Hundred Years 1914-2014. *Music Educators Journal*, 100(4), 29-38.
- Madsen, C. K.(Ed.) (2000). *Vision 2020: The Housewright symposium on the future of music education*. Reston, VA: MENC-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Education.
- Mark, M. L. & Gary, C. L. (1999). *A history of american music education* (2nd ed.). Reston, VA: MENC-The 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Education.
- Mark, M. L. (2007 April). MENC from 1957 to 1982: Music education against the backdrop of the cold war, the struggle for civil rights, and emerging technology. *Journal of Historical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8(2), 127-139.
- MENC. (1950 January). Revised constitution and bylaws. *Music Educators Journal*, 36(3), 63-67.
- MENC. (1957 April/May). The MENC of Korea. *Music Educators Journal*, 43(5), 89-90.
- MENC. (1965 January). MENC historical research center. *Music Educators Journal*, 51(3), 47.

- MENC. (1965 September/October). MENC elections. *Music Educators Journal*, 52(1), 103.
- MENC. (1969 February). The MENC historical center. *Music Educators Journal*, 55(6), 60-63.
- MENC. (1970 December). MENC annual audit report 1969-1970. *Music Educators Journal*, 57(4), 94.
- MENC. (1990 December). MENC audit report. *Music Educators Journal*, 77(4), 70.
- MSNC. (1930 February). Momentous conference changes proposed. *Music Supervisor Journal*, 16(3), 7-15, 101.
- NAfME. (2007). *MENC: A Century of service to music education 1907-2007*. Evansville, IN: M.T.PUBLISHING Company, Inc.
- NAfME. (2014 January). NAfME National Executive Board Codified Policies. Reston, VA: MENC-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Education.
- NAfME. <http://www.nafme.org>. accessed 2016년 5월.
- NAfME Historical Center. http://lib.guides.umd.edu/scpa_musiced. accessed 2016년 5월.
- NAfME National Conference History. <http://musiced.nafme.org/about/>. accessed 2016년 5월.
- NAfME Structure/Organizational Chart(PDF). <http://www.nafme.org/about/>. accessed 2016년 5월.
- NAfME Strategic Plan 2011-2016(PDF). <http://www.nafme.org/about/mission-and-goals/>. accessed 2016년 5월.
- NAfME Constitution and Bylaws(PDF). <http://www.nafme.org/about/>. accessed 2016년 5월.
- NAfME Financial Statement, Audited-Fiscal-Year-End 06/30/2015(PDF). <http://www.nafme.org/about/financials/>. accessed 2016년 5월.
- Palkki, J., Albert, D. J., Hill, S. C. & Shaw, R. D. (2016). 20 years of the MENC biennial conference: A content analysi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64(1), 14-28.

ABSTRACT

A Study on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Education(NAfME) with focus on Its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Management

Kyung-Suk Mo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Education (NAfME), which had significantly influenced American music education for the last one-hundred-ten years, with focus on its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management. The investigation was carried out through examination of all of the publications of the Association related to its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governance and activities. Especially important to the study were NAfME constitution and bylaws, National Executive Board(NEB) codified policies, articles of Music Educators Journal, audit report materials, and publications for celebrating 100 years of the association. Broadly viewed, there were three major areas which could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as follows: (1)authority vested in the three presidents(president, president-elect, immediate past president) as national officers and strict policies applied for composition of NEB and national assembly members were worthy of note; (2)the effective advocacy activities in a challenging historical era to strengthen the place of music as a core subject in public school curriculum had great implications for us; and (3)the establishment of the Historical Center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was worth noticing.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office with residing staff was noteworthy. Furthermore,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studying on applicability of these organizational features of the NAfME for the advancement of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in the future. Its examination should be approached from long-term and short-term aspects respectively.

Key words: American music education,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MENC),
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Education(NAfME)

투고일: 2016년 05월 31일, 심사(수정): 07월 22(07월 27일), 게재확정일: 08월 03일

[부록 1] 『음악교육가저널(Music Educators Journal)』 1957년 4~5월 호에 소개된 현제명 교수의 편지(원문 및 번역문)

The MENC of Korea

THE following excerpts from a letter received by Executive Secretary Vanett Lawler—from Mr. Rody C. Hyun, newly elected President of the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of Korea, will be read with satisfaction by members of the MENC:

"I greatly enjoyed attending the MENC convention at St. Louis, Missouri, in April 1956. I shall always recall it as my most cherished memory, and I personally want to extend my thanks to you for your kindness.

"After returning from the convention, I organized the MENC of Korea. At our first conference, which was held in Seoul, August 9-11, 1956, there were music educators from the kindergartens, the middle and high schools, colleges and universities all over South Korea. We believe that

this organization, the MENC of Korea, will grow rapidly and make progress in the music field in Korea. As one of our projects we are issuing the music leaflets and a music educators monthly, distributed free to about 3,000 music educators in Korea.

"We have had no such organization in Korea before; we are just starting, while your organization has fifty years of history. Please do guide us in many ways.

"The MENC of Korea is hoping to join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Music Education, and I am sending the admission fee. I shall appreciate greatly your co-operation in securing enrollment of the MENC of Korea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Music Education.

"My best wishes to you and your work."

+

The officers and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of Korea are:

Officers, President—Mr. Rody Hyun, Dean,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General Secretary—Mr. Sung Tai Kim, Director, Department of Composition,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Editor—Mr. Kyu Tong Han, Director of Music, Sook Myung University; Treasurer—Mr. Chi Ho Won, Director of Music, Sam Hung Music Institute.

Members of Board, Mrs. Young Eue Shin, Dean, College of Music, Ewha University; Mr. Won Sik Lim, Dean, Seoul High School of Music and Art; Mr. Kil Sang Kwon, Director, Children's Music Association; Mr. Kai Sook Lee, Chairman, Primary School Music Association; Mr. Kong Sun Kim, Director, Korean Children's Chorus; Mr. Hyun Myung Oh, Professor of Music, Seoul High School of Music; Mr. Soo Choon Suh, Director, Seoul United Choir.

△

"한국의 MENC"

한국의 MENC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미스터 로디 C Hyun [현제명]이 MENC 사무국장 바넷 롤러 (Vanett Lawler) 에게 보내 온 서신 전문에서 따온 아래 발췌문은 우리 MENC 회원 모두가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1956년 4월 미주리 주의 세인트 루이스 지역에서 개최된 MENC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어 대단히 즐거웠습니다. 이번 경험을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언제나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당신의 친절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컨퍼런스에서 돌아온 뒤 저는 한국의 MENC를 창립했습니다. 1956년 8월 9~11 서울에서 개최된 우리의 제1회 컨퍼런스에는 한국 전역에서 온 유치원 교사, 중고등학교 교사 및 대학 교수 등 음악교육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MENC 인 이 단체가 빠르게 성장하여 한국 음악분야의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프로젝트 중 하나로 '음악소식'과 월간 음악교육회보를 발행하여 전국 3천여 명의 음악교육가들 에게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전에 한국에는 이와 같은 조직단체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조직은 5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많은 면에서 우리를 가이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MENC는 국제음악교육협회(ISME)에 가입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입비를 동봉하여 보내드립니다. 국제음악교육협회에 우리 한국의 MENC가 가입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한국 MENC 이사회 위원들과 회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 회장-로디 현 (현제명, 서울대학 음악대학 학장); 사무총장 (general secretary)-김성태 (서울음대 작곡과 학과장); 편집위원장(editor)-한규동 (숙명여대 음악대 학장); 회계(treasure)-원치호(삼흥음악원장)

이사회 위원, 신영유 (이화여대 음대 학장), 임원식 (서울예술고등학교 학장), 권길상 (어린이 음악협회 장), 이개숙 (초등학교음악협회 회장), 김공선 (한국 어린이 합창단 장), 오현명 (서울예술고등학교 음악교수), 서수준 (서울연합합창단 장)

[부록 2] NAFME 2017~2022 전략계획(Strategic Plan) (번역문)

2015년 10월 23일 채택

사명(MISSION)

모든 이들이 음악을 이해하고 창조를 촉진토록 함으로써 음악교육의 발전 도모

비전(VISION)

음악교육의 세계를 이끌고, 음악을 창조하고 연주하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

가치(VALUES)

- 공동체(Community): 우리의 사명을 실행하기 위해 패밀리 협회, 멤버, 파트너와 협력
- 책무(Stewardship):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전략적으로 리더십을 개발하며, 책무의식과 시간, 재능 및 자원을 제공하는 문화를 육성
- 포괄성(Comprehensiveness): 인간 정신의 고양과 모든 학생들이 음악을 창조하고 연주하고 반응하며 또한 모든 스타일의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통합과 공평(Inclusion and Equity): 사람과 문화, 능력, 경제적 배경, 성 정체성에 있어서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는 이 직종에서 다양성을 촉진하고 역량을 기름
- 혁신(Innovation): 무한 변화하는 국제 사회의 맥락에서 효과적이고 다이내믹한 새로운 관행 그리고 검증된 전략을 결합함으로써 협회 프로그램의 관리와 음악교육을 향상

전략방향(STRATEGIC DIRECTIONS)

대의 홍보 (Advocacy)	직종 선도 (Leading the Profession)	연구 (Research)	역량 강화 (Capacity Building)
음악은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교육에서 필수적이고 핵심 교과임을 지원하도록 일반 국민, 정책입안자, 교육리더들에게 알리고 참여토록 하고 행동을 취하게 한다. a. 예술과 예술 교육의 진흥을 위한 포괄적 연합, 전략적 동맹, 동반 관계, 스폰서십을 개발하고 유지한다. b. 음악교육과 교육가들을 지원하는 입법적, 법규적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 c. 음악교육과 교육가들을 지원하는 전략적 메시지들을 발굴하고 강화시킨다.	음악교육가들과 교육 리더들에게 전문성 신장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고 참여토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요구를 위해 일하도록 한다. a. 주 및 전국 규모의 음악 및 예술교육단체, 타교육단체와의 관계를 강화한다. b. 다이내믹하고 효과적인 자원, 자료, 출판물,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문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발전하도록 이끈다. c. 자발적인 국가성취기준, 성취기준학습기회 및 관련 평가 등이 수행되도록 이끈다. d. 우리 직종에 미래 리더들의 역량을 키운다. e. 직종의 생명력을 유지함으로써 음악교사들을 모집하고 유지토록 하는 활동을 강화한다.	음악교육을 발전시키고 교육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좋은 데이터를 촉진하고 전파한다. a. 신뢰성 있고 타당한 지식을 얻기 위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적용한 결과로 수집된 데이터의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음악교육연구를 강화한다. b. 연구자와 실행가간에 동반 관계를 형성토록하고 지지하여 실제 현장을 향상시키고 지식을 확장토록 한다. c. 내적 및 외적인 사람들과 연구와 지식을 공유한다.	우리 협회와 우리가 위해 일하는 음악교육직종을 발전시키기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정이 운영되고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a. 협회와 주 협회, 위원회, 개인 멤버들이 통합된 전국 구조 내에서 각각 다양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관계 및 테크놀로지 역량을 만들고 유지한다. b. 기존 및 새로운 카테고리로 멤버십을 늘리도록 한다. c. 전국 및 주 단위의 리더십을 개발한다. d. 재정적으로 건전한 협회가 되도록 한다. e. 기부재단("Give a Note Foundation")프로그램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자금을 확보한다. f. 모든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우리의 사명, 비전 및 가치가 반영 되도록 한다. g. 협회의 사명, 비전 및 가치 등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연구회, 협의회, 위원회 및 멤버들이 힘을 발휘토록 한다.